

지평선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께 올립니다.

대한민국 학교현장이 긴장감 속에 돌아가고 있고, 긴급하게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.

고3부터 순차적 등교수업이 결정됨에 따라 지평선 중고등학교도 잘 준비 중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추세에 맞춰 등교수업이 무리라는 여론에 교육부의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.

지난 5월 18일 월요일 교육부 장관의 담화 내용입니다.

“고3 이외의 학년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격주간, 혹은 격일간 주 1회 이상 등교 등의 여러 방법으로 학교 내 등교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소화시키겠다”라는 내용입니다.

이 내용은,

① 대한민국의 전체 학교에 일괄적으로 등교수업을 지침으로 내릴 수 없다.
- 이것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들을 고려하면 통일적인 지침은 못 내리겠다는 것입니다.

② 하지만, 각 학교에서는 밀집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해달라. 결정은 교장의 판단에 맡기겠다. - 이것이 정부 교육부의 권고입니다. 밀집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교에서 학교장이 모색해라는 것입니다.

다음은, 전라북도 교육청의 권고입니다. 정부의 권고안과 마찬가지로,

- ① 밀집도 최소화하고
- ② 학생들끼리 교차되는 빈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
- ③ 특히,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- 우리 지평선 학교에 해당되지요? 각 방마다 배치되어있는 학생수 줄일 수 있는 방법 모색해서 운영해 달라는 권고안입니다.

이러한 정부 교육부와 전라북도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, 우리 지평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지난 며칠간 심사숙고하고 많은 시간 토론을 거쳐 등교수업에 관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

① 고등학교의 수업방식

고3은 계속 등교, 고1,2는 격주 등교입니다.

고1,2는 한주 등교수업 후 한주 원격수업을 교차로 진행하는 것입니다.

② 중학교의 수업방식

2개학년 등교수업, 1개학년 원격수업입니다.

3,2학년 등교수업, 1학년 원격수업

2,1학년 등교수업, 3학년 원격수업

1,3학년 등교수업, 2학년 원격수업으로 교차 진행하는 것입니다.

이에 따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각 학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위와 같이 결정한 수업방식에 대해 5월 21일 지평선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및 추가 논의 사항을 진행했습니다. 다행히 운영위원회에서 현 상황을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.

지금 학교에는 고3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받고 있습니다.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“너무너무 학교가 오고 싶었다.”라고 합니다. “학교에 오니 참 좋다.”고 합니다.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라는 공간이 참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이 안타깝습니다. 빨리 이 상황이 안정되고 종식되어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

지평선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이러한 상황과 학교의 수업방식에 대한 결정을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교직원 모두 긴장감 놓지 않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, 그리고 질높은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
모두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.

2020년 05월 22일 교장 조명규 올림